



Hello, I am Sister Victoria Marie Gribshaw. I was baptized Victoria Marie in honor of Our Lady of Victory because I was born during a World War II black out drill in Pittsburgh in 1942. I am the eldest of five children. Unlike many of the Sisters of the U.S. Province, I never met a Sister of Charity until my senior year in high school when I applied for admission to Seton Hill College.

Two days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in June 1960, I moved to Seton Hill and began classes on the Sisters of Charity Undergraduate Teaching Plan. In November, during the all-college retreat, I met with Sister Victoria Brown, Director of the “Plan” and told her that I wanted to become a Sister of Charity. She responded, “Why wait until graduation? You will be leaving a temporary teaching plan for a permanent one. Go home and get your parents’ permission to enter the novitiate.” Both of my parents supported my vocation and I entered the novitiate on January 2, 1961 and completed the fall semester as a postulant. I was missioned to begin teaching on February 2, 1961. I made final vows on my 26<sup>th</sup> birthday in 1968.



As a young sister I primarily taught science, math, music and religion in junior high while completing a degree in Chemistry through Saturday and summer classes. In 1972, I was assigned to pursue a Masters in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in 1974 joined the Seton Hill Home Economics faculty. In later years, I served as Chair of the Division of Management,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and taught economics and statistics.



While pursuing doctoral studies, I resided in the international residence hall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as a minority of US residents who lived with graduate students from Asia, Africa, South America, and Europe. This experience enriched my understanding of what international students

experience when they enroll at Seton Hill University.

Over the years, I have had the good fortune to live and teach several of our Korean Sisters who have studied at Seton Hill. I have also visited Korea as a member of the Planning Committee for the first General Chapter in Korea, and Ecuador, as a participant in the IECM. I now keep in touch with my Korean Sister friends via Kakao Talk.



Although retired, I continue to volunteer as Chaplain for the Seton Hill University Women’s Basketball Team and as a lector and Eucharistic Minister at Blessed Sacrament Cathedral in Greensburg. At Caritas Christi, I transport sisters to medical appointments and enjoy visiting, playing and praying with Sister Clementine every

evening when not engaged in a zoom meeting.

In my everyday life, I hold this passage from Micah in my heart. . .”This is what Yahweh asks of you: only this, to act justly to love tenderl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안녕하세요! 빅토리아 마리 그립쇼Victoria Marie Gribshaw 수녀입니다. 저는 1942년에 피츠버그에서 5형제 중 맏이로 태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등화관전 훈련 중에 태어나서 승리의 모후를 기리며 빅토리아 마리로 세례를 받았어요. 미국 관구의 다른 많은 수녀님과는 달리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어 씨튼힐 대학에 지원할 때까지 사랑의 씨튼 수녀님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1960년 6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를 후에 씨튼힐로 가서 교사로 봉사하며 대학

수업을 받는 장학생 프로그램인 사랑의 수녀회 대학생 교육 플랜the Sisters of Charity Undergraduate Teaching Plan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11월에 대학 전체 피정을 하면서 “교육 플랜”의 책임자인 빅토리아 브라운Victoria Brown 수녀님을 만났어요.

저는 수녀님께 사랑의 수녀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수녀님은 “왜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나요? 영원을 위한 계획을 위해서 일시적인 계획은 잠시 미룰 수 있지요. 가서 부모님께 입회 허락을 받아오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제 성소를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1961년 1월 2일에 입회하여 청원자로 가을 학기를 마쳤습니다. 1961년 2월 2일에 첫 파견을 받아 가르치기 시작해서 1968년 저의 26살 생일에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젊은 수녀로서 중학교에서 과학, 수학, 음악, 종교를 가르쳤고 주일과 여름 방학을 이용해 대학 수업을 들으면서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1972년에는 가정교육학 석사과정을 시작했고 1974년에 씨튼힐 대학교 가정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는 경영, 가정 및 소비자학 학과장을 맡아 경제학과 통계학을 가르쳤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Ohio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는 국제 기숙사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유럽에서 온 대학원생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기숙사에서 저는 미국인이었지만 소수 민족이었지요. 이 국제 기숙사의 체험은 씨튼힐 대학교에 다니는 국제 학생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씨튼힐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한국 수녀님들과 함께 살면서 가르칠 수 있는 행운을 여러 해 동안 누렸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첫 전체총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은사체험에 참여하여 에콰도르에도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한국의 친구 수녀님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비록 은퇴했지만, 현재 씨튼힐 대학교 여자 농구팀과 동반하는 담당 수녀로 봉사하고, 그린스버그 성체 대성당Blessed Sacrament Cathedral에서 독서와 성체분배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까리타스 크리스티에서는



수녀님들의 병원 진료를 위해 운전 봉사를 하고 줌 회의가 없는 저녁에는 매일 클레멘틴Clementine 수녀님과 함께 기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는 미카 예언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